

■ 맨유 vs 맨시티, EPL 최후의 승자는?



맨유 퍼거슨 감독

맨시티 만치니 감독

퍼거슨 “맨시티는 우승 제물”
만치니 “역전 우승 기회 왔다”

맨체스터 더비 앞두고 두감독 선전

2011~201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의 향방을 가를 맨체스터 더비전을 앞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맨체스터 시티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신경전을 펼쳤다. 맨유와 맨시티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한국시간)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맨유(승점83)는 맨시티(80점)에 승점 3차로 앞선 리그 선두. 하지만 맞대결 결과에 따라 선두가 바뀔 수 있다. 맨시티가 승리하면 승점은 같아지지만 골 득실차에서 앞서 선두가 된다. 또 두 구단은 릴(프랑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특급 공격수 에덴 아자르를 놓고도 영입 경쟁을 하고 있다.

●자신감 보이는 퍼거슨

퍼거슨 감독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맨시티를 “시끄러운 이웃”이라고 비꼬면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맨시티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값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맨시티와 경기에서 제물을 다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맨시티와 비교고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우리가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3을 확보해 20번째 우승을 빨리 결정짓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수 접고 들어간 만치니

만치니 감독은 이번 맞대결과 관련한 질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맨유와 경기가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이 또한 시즌 전체 일정 중 한 경기에 불과하다”며 “맨유전을 끝내고도 쉽지 않은 경기들이 남아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렇지만 만치니 감독은 “(우승 레이스에서) 맨유가 여러모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경험적으로도 잘 무장돼 있다. 하지만 라이벌전은 정신력이 중요하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역전 우승에 욕심을 냈다. 이어 “2010~2011시즌 5위였고, 지난 시즌 3위로 마쳤다. 이제는 우리가 1위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치니 감독은 아자르에 대해 묻자 “경쟁은 끝났다. 아자르는 다음 시즌 우리와 함께 한다”며 선수 영입 경쟁에서 앞서 있음을 공개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유럽파 점검하고
스위스 영건도 살펴보고...

올림픽대표팀 홍명보 감독

최강희 A대표팀 감독이 유럽파 점검을 위해 27일 출장길에 올랐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구자철과 스위스 바젤 소속의 박주호 경기를 관전하면서 컨디션을 체크할 예정이다.

최강희, 홍명보 뭉까지 챙긴다

그의 ‘일석이조’ 유럽출장

▶ 최종예선 앞두고 독일·스위스행
구자철·박주호 경기보며 집중 점검

바젤, 스위스 올림픽대표 다수 포진
“홍명보호 위해 선수들 면밀히 분석”

최강희 A대표팀 감독과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27일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준비를 위한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최 감독과 황보 위원장은 28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구자철(23·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를 본 뒤 29일 스위스 바젤로 이동해 박주호(25·FC바젤)를 점검한다. 바젤과의 경기에서는 세르단 샤키리(21)를 비롯한 스위스올림픽대표팀 선수들의 기량도 확인할 계획이다.

●주목적은 유럽파 점검

출장 목적은 구자철과 박주호를 점검하는 것이다. 구자철은 1월 말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된 후 13경기에 출전해 4골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부



구자철 박주호

상했다. 2011~2012시즌 바젤에 합류한 박주호는 리그 21경기에 출전하며 부동의 왼쪽 윙백으로 자리매김했다. 22일 FC시온과의 경기에서 리그 우승을 확정하며 팀에 큰 보탬이 됐다. 최 감독은 “수비수와 미드필더 자원은 풍부하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왼쪽 윙백과 공격 자원이 부족해 집중 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 왼쪽 윙백 박주호와 다양한 포지션에서 공격 능력을 뽐내고 있는 구자철의 대표 발탁을 시사했다. 대표팀은 5월 중순 유럽리그 일정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유럽파를 총망라해 소집한다. 최 감독은 “직접 훈련을 해보고 31일 열리는 스페인과의 평가전을 통해 육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스위스올림픽대표 선수도 관찰

바젤 경기를 지켜보는 최 감독과 황보

위원장의 눈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쏠려 있다. 황보 위원장은 “바젤에는 샤키리 등을 포함한 올림픽 팀의 주축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 선수들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주호와 함께 스위스올림픽팀의 전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다. 한국은 런던올림픽 남자축구에서 스위스와 가봉, 멕시코와 한조를 이뤘다. 리그에서 6골을 기록하며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확정지은 ‘왕어’ 샤키리를 비롯해 파비안 플라이(23), 발렌틴 스토커(23), 그라니트 샤카(20) 등이 바젤은 물론 스위스올림픽팀에서도 주축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바젤이 기록한 리그 60득점 가운데 12골을 뽑아내며 20%에 달하는 득점을 올렸다.

인천국제공항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유럽파 코리안 주말 경기일정

〈한국시간〉

차두리(셀틱) 29일 오후 8시 45분 레인저스 (홈) SBS ESPN 중계	지동원(선덜랜드) 28일 오후 11시 볼턴 (홈) SBS ESPN 중계
박지성(맨유) 5월 1일 오전 4시 맨체스터시티 (원정) SBS ESPN 중계	손흥민(함부르크) 28일 오후 10시 30분 마인츠 (홈)
이청용(볼턴) 28일 오후 11시 선덜랜드 (원정) SBS ESPN 중계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28일 오후 10시 30분 뮌헨글라드바흐 (원정) SPORTS1 중계
박주영(아스널) 28일 오후 11시 스토크시티 (원정)	박주호(바젤) 29일 오후 11시 라우산느 (홈)
정조국(남시) 30일 0시 강 (홈)	



손흥민, 뉴캐슬과 손잡나

뮌헨, 영입설 보도...손, 마인츠전 선발 뛸 듯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20·사진)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27일 “뉴캐슬이 함부르크의 스타 손흥민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11월 부임한 토어스텐 핑크 감독이 베테랑을 중용하면서 선발 출전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부상당한 주전 공격수 게레로를 대신해 출전한 14일 하노버 경기에서 폭풍 같은 드리블 돌파에 이은 결승골을 터트렸다. 21일 뉘른베르크 원정 경기에서 2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핑크 감독의 신임을 얻고 있다.

핑크 감독은 28일 마인츠전에서 손흥민의 선발 출격을 예고했다. 프리미어리그 4위 뉴캐슬은 내년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출전이 유력해 선수 보강 차원에서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가맹점모집 ☎ 02.333.8555

한앤들 치킨은 맛과 건강을 하나로 정성을 더해 두배의 기쁨을 드립니다

새로운 컨셉을 만나야 성공한다!

한앤들은? 고품격 Well-being 야채 숙성치킨과 담백한 오븐구이를 하나로!
품격있는 맛에 세련된 인테리어를 더해 성공 창업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WellBeing



후라이드



순살파닭치킨



베이컨 오븐구이

바삭바삭 후라이드 ~ 속살 촉촉 오븐구이 ~

후라이드치킨과 오븐구이치킨을 한 매장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앤들만의 카페식 인테리어

한앤들치킨

사업설명회 : 매주 수요일 3시 (홈페이지 참조)

드셔보시고 결정하세요!
(한앤들 외식상품권 증정)

창업특전

- 창업비용 500만원 지원
- 무이자 창업대출
- 업종전환비용 최저



한앤들치킨

검색

www.onentwo.co.kr